

광주일보 선정 2009년 광주·전남 10대 뉴스



광주시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

광주시는 지난 5월23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대학 스포츠연맹(FISU)총회에서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권을 따냈다. 지난해 2013년 하계U대회 개최지 선정에서 고배를 마신 광주시가 재도전에 성공한 것은 치밀한 준비와 광주시민의 유치 열정의 결실로 받아들여진다. 광주시는 U대회 유치로 국제적인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도시브랜드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현재 2015 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U대회 지원법안은 현재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중이다.

KIA 타이거즈 한국시리즈 V10 위업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12년만에 한국시리즈 우승의 쾌거를 이루며 호남민들에게 행복의 가을을 선물했다. KIA는 10월24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한국시리즈 7차전에서 나지완의 끝내기 홈런에 힘입어 6-5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12년만에 한국시리즈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역대 최고의 명승부를 쓴 KIA는 로페즈·양현종 등이 버틴 든든한 마운드와 최희섭·김성현으로 이어진 홈런포에 힘입어 페넌트레이스 우승까지 차지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이적생 신화를 쓰며 우승의 주역이 된 김성현은 시즌 MVP를 차지한 데 이어 각종 시상식의 주인공이 됐다.



우주강국 첫 발...나로호 절반의 성공

7년여 간의 개발 끝에 지난 8월25일 우주로 쏘아올려진 '나로호'는 발사에 성공했지만 궤도진입에는 실패한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하지만 우주강국으로 가는 첫 발을 내딛은 만큼 경제적 효과는 물론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시 발사된 나로호는 발사 과정에서 1단과 2단 분리, 위성 분리는 성공했지만 페어링 분리 이상으로 위성의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다. 발사 215초만에 페어링이 한 쪽만 벗겨졌으며 이것이 정상궤도 진입 실패의 원인이었다. 나로호 발사의 경제적 효과는 최저 1조7천588억원에서 많게는 2조3천4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옛 전남도청 별관 일부준치 결정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부지내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논란은 정부의 방침이 부분 준치로 가닥을 잡으면서 1년 3개월 만에 봉합됐다. 5월 단체들은 별관이 광주항쟁 유적으로 보존돼야 한다고 지난해 6월24일 철거반대 농성에 돌입했었다. 이 과정에서 별관 철거와 보존을 놓고 지역사회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갈등을 빚어 지역 현안 조정능력 실종이라는 광주 지역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특히 또 문화전당 공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당초 준공 일정이 2012년에서 2014년으로 늦춰졌다.



20년 숙원 호남고속철 착공

지난 20여 년간 지역민의 숙원이었던 호남고속철 건설사업이 지난 4일 충북 오송~광주 간 전 구간 공사 착공으로 본격도에 올랐다. 광주~오송 구간은 2014년, 광주~목포 구간은 2017년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KTX가 완공되면 서울~광주까지 1시간 41분이면 주파가 가능해 광주를 중심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들게 되는 등 본격적인 KTX 시대가 열리게 됐다. 그러나 당초 이명박 대통령의 '호남고속철도 2012년 조기 개통' 대선 공약과 달리 완공시기가 늦춰져 지역민들의 아쉬움이 컸다.

영산강 살리기 첫 삽

영산강을 친수·친환경 하천으로 만들기 위한 영산강 사업이 11월 22일 역사적인 '첫 삽'을 뜨면서 본격적인 영산강살리기 사업이 시작됐다. 승촌보와 죽산보 등 영산강에 새로 들어설 2개의 보의 물막이 공사가 시작되는 등 6월 8일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이후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용수확보와 홍수조절량 증대,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등을 목표로 세부 일정에 따라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1년에는 분류 준설, 보 설치, 하천 정비 등 대부분 사업이 마무리된다.



2012 여수엑스포 부지 기공

2012 여수 세계박람회 부지 기공식이 11월20일 여수 신항에서 개최되는 등 박람회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철도와 도로 등 주요 SOC 건설 예산이 축소되고, 민자유치를 통한 숙박시설 건립사업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는 2012년 5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총 93일 동안 개최될 계획이며, 전 세계 100여 개 국이 참가하며, 약 80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도 연쇄 살인·막걸리 살인

올해 광주·전남은 여신도 연쇄살인 사건과 순천 막걸리 살해 사건 등 엽기적인 사건이 잇따랐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7월 8일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W성당 마당에서 신도 염모(여·47)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모(38)를 검거했다. 박씨는 앞서 5월 20일에도 북구 용봉동 S교회 앞길에서 광주 모 종합병원 여의사 안모(여·43)씨를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순천에서는 지난 7월 6일 희망근로에 참가한 최모(여·59)씨 등 할머니 4명이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고 2명이 숨졌다.



조선대학교 21년만에 정상화

조선대학교가 21년 만에 정상화됐다. 조선대는 교육과학기술부 사회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0일 7명의 정이사와 1명의 예비이사 등 총 8명을 선임함에 따라 정상화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교과부는 선임한 7명의 이사를 중심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이사 체제를 출범시킨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종전이사(옛 경영진) 측이 '무효'를 주장하면서 법률 대응을 준비중이며, 조선대도 행정절차상 문제 등을 거론하며 법률 대응을 검토 중이어서 자칫 정이사 체제 조기 안착이 어려워지지 않느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해돋이 명소 여수 향일암 전소

국내 대표적 해돋이 명소인 향일암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요 건물이 잿더미로 변했다. 지난 20일 새벽 0시24분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 대웅전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8동의 암자 건물 가운데 대웅전 등 3동이 전소됐다. 산 중턱에 위치한 향일암은 비좁은 진입로와 목조 건물의 특성상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 등 화재 방재장치 설치 필요성이 높았지만, 소화기 외에는 이렇다할 방재장비가 없어 피해를 키웠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매력한우
(No. 1)
맛있는 직판장

영암 매력한우
농가 직판장

영암 매력한우
농가 직판장

UPGRADE

최고의 업무공간을 위한 업그레이드

UPGRADE